

축 사

**BBS울산불교방송이 이번에 제1회
국제 차문화 축제를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불교에서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
해서 차를 달이고 마시는 일을,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 불교와
차는 우리민족의 삶의 발자취와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불교를 통해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삼국이 이번 국제 차문화 축제를 통해 서로의 차문화를 비교, 조명해 보는 것은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재 음미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울산은 지난 40여년간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끈 산실입니다.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시가 이번 국제 차문화 축제를 계기로 생태 산업도시로 더욱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태화강의 기적을 이끈 박맹우 울산 시장님과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영도 울산 불교방송 사장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신 불자님들과 다인들에게 영상으로나마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합장